

## 아버지 잃은 자의 아버지 되기, ‘포르트 다(fort-da)’의 윤리

— 서기원 초기 소설 속 청년들의 연대와 불안정한 욕망 회로 —

박필현\*

<차례>

1. 서론
2. 버려진 청년, 금 간 연대
3. 나와 닮은 ‘그 사나이’, 부자(父子)의 승인
4. ‘아버지 되기’ 욕망의 윤리: 낯선 여자와 아버지 없는 아이
5. 결론

### <국문초록>

흔히 전후 신세대 소설가로 분류되는 서기원은 손창섭, 장용학, 오상원, 이범석 등 동세대 전후 작가들과 달리 현실의 공간이나 즉물(即物)을 성실하게 관찰하고 인식하려 했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전쟁이라는 폐허의 상황에서, 현실의 공간·즉물을 성실하게 관찰하면 어디에 이르게 될까. 본고는 서기원 초기 소설 속에 등장하는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형상, 곧 청년들의 연대,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청년 주인공들의 ‘아버지 되기’ 욕망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일제강점과 전쟁이라는 녹록지 않은 역사적 경험을 가진 만큼, 우리 근현대 문학에서도 ‘아버지 부재’와 청년들의 연대는 종종 확인된다. 서기원 소설 속 아버지 표상 역시 크게 보아 이러한 맥락 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서기원 소설 속 청년들이 이룬 공동체는 그간 우리 문학에서 그려진 청년들의 연대와는 달리, 적극적인 연대의식 대신 수동적인 공통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갖는다. 이 공동체는 어떤 신념이나 젠더에 앞서, 유기(遺棄)된 존재라는 공통성에 기반한다. 버려진 존재인 청년들은 이성과의 사랑 및 ‘정상가족’을 꿈꾸지만, 이들에게 사랑이란 타자성의 발견과 수용이 아니라, 이들이 갖지 못한 사회관계의 생성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을 위한 당위적 행동일 뿐이다. 따라서 이 버려진 청년들이 이룬 공동체는 손쉽게 붕괴되어 버린다. 즉 서기원 소설 속 청년들의 공동체는 기존의 질서에 대한 어떤 대타의식을 드러내는 것도, 우정이나 사랑을 담아내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부재하는 텅 빈 현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성과의 사랑과 정상가족을 꿈꾸는 남성 청년들은 공히 아버지를 희망한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청년들은 부재하는 아버지를 치열하게 탐색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격렬하게 부인하거나 강하게 긍정하는 대신 청년들은 자신과 아버지 표상을 슬쩍 겹쳐놓는다. 아버지는 그저 '나와 닮은 것으로, 이들은 손쉽게 아버지를 승인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매듭짓고 있는 것이다. 격렬한 부인이나 긍정의 합리화 등 수고로움 없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매듭지었지만, 치열한 탐색이 생략된 결과 아버지는 여전히 불가해한 존재로 남게 된다. 내가 승인한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진짜 모습인지, 그가 나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나는 종내 알 수 없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역지로 복원시켜보아도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다. 이성과의 사랑과 아이를 기대하지만, 청년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이들의 젠더감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여자와 아버지를 혹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일 뿐이다. 일견 손쉽게 얻을 수 있을 듯도 하지만 이들은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라깡은 프로이트의 '포트 다(fort-da)' 게임을 재해석하며 아이가 던진 실패를 어머니가 아닌 대상 소타자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젝은 이 게임의 근본적 불안은 아이가 대타자의 향락에 사로잡혀있음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지젝은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에게서 어머니 부재의 극복이 아니라, 대타자의 향락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공간을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노력을 읽는다. 서기원 소설 속 청년들의 아버지 되기 욕망은 지젝이 해설한 '포트 다(fort-da)' 게임과 닮아 있다. 낯선 여자와 아버지 없는 아이는 청년들의 욕망이 양면적임을 보여준다. 아버지 되기를 열망하지만 동시에 아버지 되기를 열망하지 않는 이 욕망의 회로는 압도적인 아버지의 현존에 대한 불안인 것이다. 이러한 욕망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부정하는 행위이든 긍정하는 행위이든 그것으로부터 놓여날 수 없다는 것, 아버지는 나를 무한히 불편하게 하는 불안이라는 것이다. 서기원 초기 소설의 윤리는 여자를 책임진다거나 아버지 되기를 꿈꾼다는 점, 그래서 이들이 소위 건강한 남성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되기의 열망과 열망하지 않음 사이에 갇힌, 그 욕망 회로의 불안정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전후 현실의 공간·즉물에 대한 관찰이 이른 자리이며, 아버지 없는 아이로 표상되는 희망과 암울을 함께 품은 이 전망이야말로 서기원 초기 소설이 보여주는 한계이자 동시에 윤리라 할 것이다.

**주제어** 전후 소설, 전후 신세대, 서기원, 청년 공동체, 아버지 표상, 아버지 되기, '포트 다(fort-da)' 게임, 「암사지도(暗射地圖)」, 「이 성숙한 밤의 포옹」, 잉태기, 「달빛과 기아」, 「야화(夜花)」, 「상속자」, 박명기(薄明記)

## 1. 서론

2018년 4월, 남북한 정상회담 판문점 군사경계선을 넘나들었다. 북미정상회담 만남에 이어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내비쳤다. 한때 그야말로 당장이라도 다시금 전쟁이 벌어질 듯했으나 또 어느 순간은 한반도에 유래 없는 데탕트 시대가 열릴 듯도 했다. 냉운을 오고가는 이 극단적인 분위기나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전히 전쟁 중이었음을 새삼 환기시킨다. 그렇다. 전쟁은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시기, 전장에 선 사람들만의 것은 아니다. 김동춘은 한국을 각자도생의 '피난사회'라 칭한 바 있다. 한국전쟁이 1950년대에 그치지 않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만성적인 피난사회로 만들었다는 논의이다.<sup>1)</sup> 그의 지적이 시사하듯이 전쟁은 아주 길게, 아주 넓게 영향을 미친다. 사건으로서의 한국전쟁이 반세기 이전에 이미 끝이 났음에도, 그 후의 한국 문학은 간접적으로 '전후 문학'의 범주에 있다는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서기원은 한국 전후문학의 계보로 따지자면 한참 앞쪽에 자리한다.<sup>2)</sup>

1)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9, 121쪽.

한국전쟁이 끝난 지 불과 3년 뒤인 1956년 등단한 서기원은 흔히 손창섭, 장용학, 오상원, 이범석 등과 함께 전후 신세대 소설가로 분류된다. 대개 1955년을 전후로 등단한 이들은 공히 전쟁을 경험했고 또 공히 젊었다. 그러나 사실 전쟁은 빈번했고 누구나 한때는 청년이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의 공통점은 청년이 된 어느 날 문득 전쟁을 맞닥뜨렸고 우연히 살아남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의 필연성이나 필요, 정당성 등을 승인한 적이 없는데도 그 자리에 섰고 그럼에도 살아남은 것이다. 전쟁을 “어른들의 불장난”이라 말할 수 있는 순진무구한 어린 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신념을 갖고 전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 어른도 아닌 청년, 이런 이들이 그들만의 세대의식을 갖고 폭력적이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인간의 좌절과 방향을 추적하는 것<sup>3)</sup>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조남현은 서기원의 특이성을

- 
- 2) 유중호, 김윤식, 정호웅 등을 비롯해 다양한 논자들의 논의가 있었으나, 동세대 작가들에 비해 서기원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그의 소설은 대개 개별적 특이성 보다는 동세대 작가들을 아우르는 과정에서 경향적으로 파악되곤 했다. 흔히 전후 실존적 허무와 그 극복 곧 전후 지식인 청년들의 방황과 고뇌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동세대 작가들과 더불어 현실인식, 자의식, 폭력, 공동체, 아버지 표상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김은정, 전후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 몸 공유’모티프의 의미 연구, 『국제어문』 제61집, 국제어문학회, 2014. 6; 김택호, 낭만적 희망의 발견과 공동사회로의 복귀의지, 『한국문예비평연구』 16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5; 노지승, 「전후 소설에 나타난 남성 정체성의 문제와 문학교육적 함의 -서기원, 손창섭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3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0; 배경열, 서기원 초기 소설의 특징, 『배달말』 29집, 배달말학회, 2001; 손종업, 서기원 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재현 양상, 『어문연구』 제31권 제3호, 어문연구학회, 2003년 가을; 신종곤, 「1950년대 전후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의 굴절 양상」, 『현대소설연구』 16,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이호규, 「서기원 1950-60년대 초기 소설 연구」, 『새얼 어문론집』 제18집, 새얼어문학회, 2006. 2; 정연희, 전후 소설에서 ‘부재하는 아버지’와 ‘변형된 아버지’의 양상 연구, 『인문언어』, 12-1, 국제언어인문학회, 2010; 차혜영, 「서기원의 1950년대 소설」, 『한국언어문화』 13권, 한국언어문화학회, 1995 등)
- 3)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197쪽.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세대 전후 작가들이 전쟁 체험에 짓눌리거나 그 체험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나머지 실험실로 들어가 버린 반면, 서기원은 현실의 공간이나 즉물(卽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하게 관찰하고 날카롭게 인식하려 했다고 평한 바 있다.<sup>4)</sup> 전쟁이라는 외상적 실재에 직면해 모든 것이 파괴된 잔해 속에서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실존을 고민하는 것은 닳 할 것이 없는 일이다. 다만 어떤 이념을 승인하고 다시금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도 아니고 몰가치와 무의미를 아프게 앓는 것도 아니라, 그런 압도적인 폐허의 상황에서 현실의 공간·즉물을 성실하게 관찰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보일까.

어느 날 문득 전쟁을 겪고 우연히 살아남은 청년들은 황폐해진 빈자리에 섰다. 그 빈자리에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아버지'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사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도 속해있는 양면적 성격의 존재이다. 아버지는 제도의 수호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곧 견고한 제도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후 정신적 공황이나 심리적 혼돈은 대개 '아버지의 부재'와 연관되어 설명되어 왔다.<sup>5)</sup> 전쟁은 현실의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법이나 윤리, 이데올로기 등 역시 폐허로 만들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이후 우리의 현대사는 해방, 새로운 국가 건설, 전쟁 그리고 분단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숨 가쁘게 전개된다. 해방 후 제 힘을 다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축소되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4) 조남현, 다양한 소재에서 정직한 인식으로, 서기원, 오늘의 작가총서 『암사지도』, 민음사, 1996, 358~359쪽. (민음사판 오늘의 작가총서 중 서기원의 작품집 『암사지도』에 붙인 조남현의 해설이다.) 지성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용학과 닮아 있지만 끝까지 현실의 구체성을 잃지 않으려 하다는 손종업의 논의 역시 유사한 지점을 가리킨다 하겠다.(손종업(2003), 앞의 논문, 229쪽)

5) 이는 비단 서기원 소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아버지 부재 모티프는 김윤지, 나병철, 이지현, 장세진, 정연희 등 다양한 논저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왔다.

곧 새로운 상징질서를 기획하는 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들의 시도는 결국 전쟁이라는 극단의 폭력과 분단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이들 청년은 어떤 존재이며 그들이 본 빈자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들은 어디를 향해갈까. 본고는 서기원의 초기 소설을 통해 폐허에 선 청년들, 곧 아버지를 잃고 그 빈자리를 맴도는 청년들의 분투와 욕망, 삶의 그 한 형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버려진 청년, 금 간 연대

문학에 있어 청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영현에 따르면 청년은 근대이다. 고정된 모든 것이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는 시간의 소용돌이가 근대라면, 흩어져가는 균열의 경계선에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바로 ‘청년’이기 때문이다.<sup>6)</sup> 근대의 삶은 익숙한 고향의 세계 속에서 많은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던 과거와는 달리 미결정적이고 역동적이며, 청년 역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형성해가는 과정의 존재이다. 따라서 1950년대 우리문학에서 성장소설의 모험적인 청년 주인공이 사라졌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7)</sup> 서기원의 소설 속 주

6)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청년은 근대”라는 선언적인 표현은 머리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서구의 교양소설과 대비되는 한국 성장소설에 주목하고 있는 나병철은 우리 성장소설에서 ‘아버지 부재’모티프가 자주 발견되는 것을 한국 근대사의 특수성과 연관해 읽어낸다. 식민지 시대 성장소설에서 아버지의 죽음이나 무력화가 국권의 상실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시기 아버지에 대한 반항은 식민지적 오이디푸스 구조에 저항하는 탈식민지적 변혁운동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쟁체험을 담은 성장소설에서 아버지의 무력화는 전쟁의 폭력적 상황에 휩쓸린 결과이며, 전쟁과 전후의 상황은

인공들은 모험적인 청년 주인공이 사라진 자리에 그 모습을 드러낸 낯선 청년이다.

근현대 문학에서 '아버지 부재'와 청년 혹은 소년들의 연대는 종종 확인된다. 전쟁 경험 이전 식민지 시대에도 아버지는 무력하거나 곧잘 부정되곤 했고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이들 아버지의 대척점에서 청년 혹은 소년들은 그들만의 연대를 이루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혈연관계 없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무목적의 생활 공동체를 이뤄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거나 착취당하며 간신히 생존해가는 것은 다소 이질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전후 소설은 종종 작품 속 청년들이 구성한 공동체의 기이함으로 주목받곤 했다.<sup>8)</sup> 이들이 구성한 공동체는 일견 젊은 남성 공동체의 외형을 갖는다. 이를 떼면 「잉여인간」의 익준, 봉우, 만기나 「혈서」의 달수, 준석, 규홍과 같이 말이다. 젊은 남성들이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전쟁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전쟁은 여성을 배제한 남성 동맹에 의해 수행되며 남성들의 유대감과 동지의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sup>9)</sup> 전쟁이 모두의 것이라 해도 전선에 서게 되는 것은 젊은 남성들이며 이들의 남성다움과 동지의식의 강화는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실제로 제대군인이거나 탈영병인 서기원 소설 속 '나'들에게 기꺼이 손을

---

그 자체가 사회적 차원에서 변혁을 소망하는 세력이 와해되어간 과정이라고 본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전쟁은 1950년대 우리문학에서 성장소설의 모험적인 청년 주인공을 사라지게 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폭력적인 체험에 압도되어 1950년대에는 성찰적인 소설언어를 만나기 어려우며 1960,70년대에는 모더니즘과 소년 주인공을 통해 전쟁체험을 간신히 기억하고 이를 정면에서 다루게 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 가능했다.(나병철, 「전쟁체험과 성장소설」, 『청람어문교육』 33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6. 6., 165~168쪽 참조.)

8) 김은정, 김택호, 노지승 등의 논의에 더해 손창섭 등을 대표로 한 여타 전후작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9) 와카쿠와 미도리, 김원식역, 『사람은 왜 전쟁을 하는가: 전쟁과 젠더』, 알마, 2007 참조.

내밀어주는 것도 나와 유사한 젊은 남성이다. 고압적인 중대장 밑에서 서로의 유일한 친구였던 미대생 김형남과 법대생 박상덕은, 제대 후 갈 곳 없이 길을 떠돌던 김형남에게 박상덕이 기꺼이 자신의 집 한 칸을 내어주며 동거생활로 접어들게 된다(『암사지도(暗射地圖)』). 연인인 상희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곧장 탈영을 행한 ‘나’에게 “무한한 포용으로 이해해 주는 친구”가 되어 안전한 피신처를 내어준 것은 사창가에서 옆방에 머물렀던 선구(『이 성숙한 밤의 포옹』)이다. 그러나 생명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다져진 혹은 사창가에서 함께 여자를 사며 다져진 남성적 연대의식을 서기원이 그려낸 공동체의 근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자신과 유사한 젊은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들과도 곧잘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꾸린다. 상덕은 길가에서 우연히 부딪친 형남을 거리낌 없이 맞아들였던 것처럼 윤주 역시 “우리 집에 눌러잡시다.”라는 말로 맞아들인 바 있다. 그리하여 형남이 상덕의 집에 거거하게 되기 이전에 이미 그 집에는 최윤주가 머물고 있었고(『암사지도』) 도섭은 전쟁 중 첩자로 몰려 죽을 뻔한 승숙을 구해 동거한 지 5년이며(『잉태기』) 하숙집에서 내몰린 내가 찾아간 것은 헤어졌던 과거의 연인 석희이다(『달빛과 기아』).

작품의 초점 화자는 대개 남성이지만 서기원 소설 속 청년들이 이룬 공동체는 젠더라거나 어떤 신념에 앞서, 유기되었다는 감각적 공통성에 기반하고 있다. 모험적인 청년들이 사라진 자리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버려진 청년들이다. 이들은 어느 날 문득 홀로 폐허의 세상에 남겨졌다. 남성 인물들의 가족은 죽거나 혹은 애초에 언급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재 하곤 하며, 여성 인물들은 곧잘 버림받는다. 윤주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며 가족에게 내쫓겨 거리에서 상덕을 만났고 석희는 전쟁 중 첩만 데리고 피난한 아버지를 원망한다. 어떤 사연을 가졌든 이들 청년들은 흔히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배제된 외톨이며, 어느

누구도 이들을 애써 찾지 않는다. 더욱이 이들은 가족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럴듯한 사회적 소속 역시 가지지 못했다. 버려졌다는 감각은 버리거나 떠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버리거나 떠나는 것이 어떤 저항일 수 있다면 어느 날 문득 보니 여기에 있는 것, 버려지는 것은 그럴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세계에 대한 비판정신을 통해 자아가 성장하고, 정체성이라는 것이 사회적 상황 안에서 개인이 갖는 역할의 정의와 더불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때 버려졌다는 감각은 청년으로서 누려야 할 자아 성장이나 정체성 확립의 기회를 애초에 박탈당했다는 감각이기도 할 것이다.

고독한 개인인 근대인에게, 주어진 공동체란 없다. 신념 혹은 사랑의 연대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해나갈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적극적인 연대 의식이 아닌 수동적인 형태의 공통성에 기반한 것이기에 이들 서기원 소설 속 청년들이 이룬 공동체는 애초에 위태로운 것이었다 하겠다. 서기원 소설 속 인물들의 시선은 곧잘 이성을 향하는데, 이는 이 위태로운 공동체의 유지나 강고함을 위해 청년들이 기대는 것이 사랑임을 의미한다. 청년들은 그들이 이는 가장 익숙하고 오래된 공동체, 소위 '정상가족'을 꿈꾼다.<sup>10)</sup> 남자는 위기에 처한 애처롭고 나약한 여자를 구하고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아이를 이루는 것이다. 윤주를 아주머니라고 칭하려는 형남에게 자신은 윤주와 그런 사이가 아니며 “내가 뭐 개하구 평생 살겠다든가?”하고 반문하던 상덕은 정작 윤주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10) 주지하다시피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상가족이란 아버지, 어머니, 정상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의 가족이다. 서기원 소설 속 청년들의 욕망은 김택호나 김은정 등을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김택호(2005)는 이 청년들의 공동체에서 여성에 대한 애정 형태로 낭만적 희망이 포착된다고 논한 바 있고, 김은정(2014)은 전후의 신경증적 불안감 극복을 위한 '여성 몸 공유' 모티프의 내면에는 유아기적 '가족 로망스' 환상이 존재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이일 것을 확신하며 낳을 것을 종용한다. 윤주를 ‘공유’했던 형남 역시 결국은 윤주가 낳는 애의 아버 노릇을 하겠다고 생각한다. 둘 사이의 관계를 동거라 칭하면서도 도섭은 승숙이 제대로 아내노릇을 하기를 기대하며, 애정이 식었다며 과거 이미 냉정히 이별을 고했었으면서도 인민군이 북으로 밀려 올라가게 되며 여맹에 가입했던 석희가 위기에 처하자 나는 다소 뜬금없이 “석희는 내 아내야!”라고 말한다(『달빛과 기아』).

문제는 이런 사랑이 흥내일 뿐이라는 데 있다. 윤주는 영화관 앞에서 상덕을 만나 그의 집에 머물게 된다. 집에서 쫓겨난 윤주는 부산 친구네로 갈 생각으로 정거장을 향하다가 영화관 앞에 멈춰 선다. 새로 개봉된 불란서 영화가 보고 싶었던 것이다. 상덕은 그런 윤주에게 “영화 구경 같이 합시다.”하고 말을 붙였었다. 한치 앞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데, 보스턴백을 든 채 불란서 영화가 보고 싶어 주머니를 더듬는 여자와 마치 그 여자의 욕망을 읽었다는 듯이 영화 구경을 권하는 남성, 이 욕망과 권유는 이들만의 특별한 접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공감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으며 상덕은 이내 “애매한 놈팽이와 몇 달 살다가 채운 거겠지. 다 그런 여자 아냐?”하고 윤주를 멸시한다. 또한 과거 도섭은 총알이 빠져나간 승숙의 허벅다리 상처를 어루만지며 사랑으로 그걸 아물게 하겠노라 속삭였었으나 현재는 승숙을 향해 인민군 놈들한테 죽도록 당하고 난 찌꺼기라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라며 비난을 퍼부을 뿐이다. 유기되었다는 공통감각으로 공동체를 이루었고 사랑으로 그것을 강고히 하고자 하지만 이들은 결코 서로의 타자성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들 청년 남성에게 윤주, 승숙, 석희 등은 나와 다른 한 주체로서의 구체적인 인물이 아닌 때문이다. 내가 이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은 익숙한 정상가족이며, 따라서 이들은 정상가족의 지표라 할 아이를 낳아주거나 나로 하여금 소위 보호하고 책임지는 남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도구

적 대상으로서만 그 가치를 지닌다. 실상 이들의 사랑이란 진입할 사회관계를 잃은 청년들이 스스로 그것을 생성해내려는 과정인 셈이다. 타자성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위로 행하는 이들의 사랑은 아무 것도 구원하지 못한다. 사랑하고자 하지만 그 사랑이 연대나 치유의 도구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이다. 수동적인 공통성과 흉내내기식 사랑으로 구성된 이들 청년들의 연대, 공동체는 손쉽게 금간다.<sup>11)</sup> 서기원 소설 속 버려진 청년들의 공동체는 기존의 질서에 대한 어떤 대타의식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의 우정이나 사랑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모두 부재하는 텅 빈 현실의 모습을 뾰족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 3. 나와 닮은 '그 사나이', 부자(父子)의 승인

정연희는 전후소설에서 현실을 지탱하기 어려운 개인의 절망과 환멸과 연민을 들여다보는 문학적 탐침이 아버지의 이름을 중심으로 작동하며 그것은 결국 아버지의 빈자리를 확인하는 것이라 논한다.<sup>12)</sup> 강한 아버지라면 그것에 대항하거나 타협해가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강하다면 그것에 저항하는 청년들도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거나 무력한 아버지라면 어떻게 될까. 우선 이 아버

11) 혹자는 서기원 소설의 남성 인물들이 남성 공동체의 균열과 폭력적 남성성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며 '건전한' 남성성과 남성 공동체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읽어내기도 하지만 극단적으로 폭력적·강압적이거나 기형적이지는 않다 해도 서기원 소설의 초점화자인 남성 청년들이 모범적이거나 건설적인 청년의 상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만남 이후 이들의 생활 속에서 건전한 우정이나 신뢰를 확인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12) 정연희(2010), 앞의 논문, 64쪽.

잃은 자는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확인하려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 그것은 어떤 가치도 의미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대응은 새로운 아버지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무력한 아버지를 죽이거나 부인하며 그 비어있는 자리를 강한 아버지의 상으로 채우는 것이다.

서기원 소설 속 아버지들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워져있기도 하고 어설픈 유산을 남기고 이미 죽어버린 경우도 있으며, 무력한 병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아들들은 이처럼 부재하거나 무력한 아버지를 애써 부정하거나 혹은 긍정하지 않는다. 소설 속 아버지들은 강력한 가부장적 성격을 가진 존재도 아니고 특별히 폭력적이거나 파렴치하거나 타락한 존재도 아니며 그렇다고 유달리 선량하거나 애정 어린 존재도 아니다. 이를 떼면 아버지는 남은 아들에게 그것이 애정이든 증오든, 어떤 감정도 크게 환기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이처럼 아버지의 구체적인 면모나 아버지애 대한 나의 태도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서기원 소설에서 아버지 표상의 무게가 가벼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곳곳에 있으며 「암사지도」, 「잉태기」, 「야화」 등 부재하는 아버지조차도 아버지 되기의 형태로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서기원의 소설 속에서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탐색되지 않는다. 부단히 그 근처를 맴돌지만 정작 그것에 뛰어들지는 않으며, 따라서 아버지가 무엇인지는 종내 알 수가 없다.

할아버지는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질서에 집착하지만 그러한 가치는 이미 아버지 대에서 부인된 것이며(「상속자」), 정작 아버지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모호하기만 하다. 상덕은 “그 사나이”라 지칭하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머릿방과 문간 지붕이 포탄에 날아간 아버지 첩의 집을 물려받았고 “홍패가 다섯 장이나 있는 구대 종손”인 석운은 아버지에게서 네댓 달 하숙비쯤 될 돈이 든 지갑을 물려받았다. 지붕에 구멍이 뚫린 첩의 집이

나 다소간의 지폐가 든 지갑이 할아버지가 물려받았던 도리옥과 동급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저 흔한 옥관자가 아닌 도리옥에는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일평생 도리옥을 지켜왔지만 상덕은 언제건 그 집을 팔아 얼마동안이라도 신나게 써버릴까 하는 생각을 곧잘 드러낸다. 아버지는 존재했고 분명 나에게 무언가를 남기기도 했으나, 그가 나에게 남긴 것은 단기간 생활을 영위해나갈 기반일 뿐 내 삶의 향배를 가를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남겼고 나는 그것을 지녔으나, 정작 내 삶에 있어 그것의 가치나 역할은 모호하기만 한 것이다.

이처럼 서기원 소설 속 청년들은 마치 금기를 대하듯 아버지의 빈자리, 그 경계를 돌며, 아버지는 부정되지도 긍정되지도 않는다. 아버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대신 그 주변을 맴돌던 이 청년들은 어느 순간 아버지를 승인할 따름이다. 이는 아버지 표상을 자신과 겹쳐놓음으로써 가능해진다. 부자(父子)는 서로 닮았으며, 아버지의 행동과 나의 행동 혹은 나의 죄와 아버지의 죄는 겹쳐 놓인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병든 아버지와 전투 중 포격으로 실명한 채 스스로 무거운 심장질환을 가진 병자라 믿는 나는 건넌방과 안방에 데칼코마니처럼 자리하며(「박명기」), 할아버지는 석운의 외양이나 행동을 보며 입버릇처럼 “천상 애비닮았지.”, “어쩌면 저렇게도 애빌 닮았을까!”라는 말을 반복한다(「상속자」). 아버지에 대해 형제들과 연대를 이루기는커녕 반쯤은 제 손으로 형을 죽인 나는 결국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고 승인받는데, 이 승인의 과정은 역으로 아버지에 대한 나의 승인이 되기도 한다(「박명기」). 형을 죽인 건 자신이라는 나의 고백에 아버지는 “알고 있다. 다 내 죄다.”라고 답한다. 이제 나는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다. 나를 탓하거나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죄’라고 칭하는 순간 나와 아버지의 거리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들 부자는 ‘그릴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어버림’을 상호 승인한 것이다. 아버 잃은 소년 석운의 행보도 이러한 맥락과 닿아 있다.<sup>13)</sup> 석운은 할아버지의 것도 아버지의 것도 고스란히 받아들이거나 계승할 마음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버리거나 부인하지도 않는다. 그 의미를 명확히 짚지 못한 채 그저 일부를 지니고 집을 떠난다. 석운은 임종 시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는 그 손에 붙들리지 않으려 하면서도 집을 떠나면서는 네 귀통이가 닳은 아버지의 지갑을 챙긴다. 이런 그의 입장은 특히 옥관자를 ‘흠치’는 행위를 통해서 부각된다. 할아버지는 늘 집안의 모든 것은 종손인 석운의 것이라 말해왔다. 그 말에 따라 모두 다 내 것이라고 되뇌면서도 석운은 고방의 남날개 속에서 옥관자를 흠친다. 애초에 내 것이라면 흠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석운의 흠치는 행위는 역으로 할아버지가 말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그가 할아버지와는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들들은 이렇게 자신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더듬어내며, 모자라거나 죄지은 스스로를 수용하듯 아버지를 받아들인다. 나는 아니지만 나와 닮

13) 석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있는 시골집으로 내려와 살게 된다. 할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종손 운운하지만 정작 석운은 어머니의 제사 걱정을 못마땅해 하던 아버지처럼 제사 냄새가 맡끔히 가시기까지 거둬 손을 씻고 음복도 하지 않는다. 제사 지내는 품이 썩 어울리는 것은 석운이 아니라 그의 사촌동생 석배이다. 석배는 석운을 너무도 닮은, 그래서 석운을 몹시도 불쾌하게 만드는 간질병 환자다. 할아버지가 아끼던 도리옥을 흠친 것으로 오해받던 석배는 작품의 말미에 이르러 물에 빠져 죽은 시체로 발견된다. 도리옥을 흠친 진범인 석운은 석배의 시체가 집으로 들기 전에 도리옥 옥관자와 네 귀통이가 닳은 아버지의 가죽 지갑을 지닌 채 집을 떠난다. 이 작품은 서기원 작품의 한 분기점으로 꼽히는 1963년 발표되었다. 그간 청년들의 삶에 매우 가까이 시선을 들이대고 있었다면 실제로 이 작품은 현실에 대한 다소간의 원경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기점의 한 예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 석운 역시 청년이라기보다는 소년에 가깝다.

은 것, 그렇게 내 모습에 아버지의 모습을 겹쳐놓음으로써, 이들 아들들은 격렬한 부인, 긍정의 합리화 등의 수고로움 없이 비교적 손쉽게 아버지와 의 관계를 매듭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와 아버지가 동일한 존재일 수는 없다. 내가 아버지를 나의 어떤 모습에 포개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고스란히 아버지의 진실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아버지가 과연 나와 천상 닮은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그의 모습은 무엇인지 끝끝내 모호하기만 하다. 적극적으로 탐색될 수 없는, 그러지 않은 아버지는 나와 희미하게 겹쳐질 뿐 여전히 모호하고, 알 수 없는 불가해한 존재로 남는다.

#### 4. '아버지 되기' 욕망의 윤리 : 낯선 여자와 아버지 없는 아이

서기원의 청년들은 치열하게 앓거나 고민한다기보다는, 익숙한 관계를 꿈꾸고 손쉽게 아버지를 승인하며 또 아버지 되기를 희망한다.<sup>14)</sup> 따라서 일견 이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평범한 삶을 성취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서기원 소설의 윤리는 이들이 그리 쉽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복원시켜보아도 정작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며, 아버지 되기를 꿈꾸지만 낯선 여자와 아버지 없는 아이를 맞닥뜨릴 뿐이다.

익숙한 관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서기원 소설 속 청년들은 여성에게서도 익숙한 모습을 찾고자 한다. 이들 젊은 남성들이 여성 인물들에게 관

14) 정연희(2010)는 『암사지도』를 논하며 부정된 아버지의 자리를 쾌락의 아버지(상덕)와 상징적인 아버지의 잔영(형남)이 차지한다고 보며 이 두 아버지가 모두 상징적인 아버지로 환원되지 못함을 지적한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아버지로의 환원실패를 결론 그 자체로 두지 않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읽어보고자 한다.

대해지는 순간은 여성 인물들에게서 그들이 기대한 모습을 발견할 때이다. 윤주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애처로워졌을 때, 피호자(被護者)의 입장이 뒤바뀌어 석희가 위협에 몰렸을 때, 승숙이 총상을 입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제 손으로 제 아이를 죽인 옥남 어머니와 아들 준식의 건강을 염려하며 노심초사하는 아내의 모습이 대비되어 보일 때(「야화」) 이들은 한없이 너그러워진다.<sup>15)</sup> 위협에 처해 남성의 구원을 바라는 연약한 여성이나 자식에게 헌신적인 어머니는 이들에게 낮은 젠더감성으로, 이러한 여성들의 모습은 ‘여성’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낮은 모습을 통해 남성 인물들은 이들과 함께 이루게 될 가족 역시 익숙하고 친근하며 기대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서기원 소설 속 여성들은 남성들의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 여성들은 애정의 대상이나 성적 대상 혹은 모성의 대상으로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 인물들은 그들의 시선이 닿은 여성 인물들에게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찾아내려 애쓰지만 이들에게서는 새롭고 낮은, 그래서 두려운 면면들이 자꾸만 드러난다. 석운의 눈에 비친 사촌 동생 석희는 자신 보다 숙성해 보여 한 방에 있기가 잘못으로 여겨지며(「상속자」), 승숙은 자신의 외박을 따져 물어주길 바라는 도섭의 기대를 무시해 화를 돋우더니 옆 방 학생인 철훈과 관계를 갖는다(「잉태기」). 서로 아버지가 되겠다는 상덕과 형남을 남겨두고 윤주는 사내 걸음으로 대문을 나서고(「암사지도」), 옥남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낳은 후 그 아이를 제 손으로 죽여 묻는다(「야화」). 뱃속 아이를 내 것이라 칭하며 “죽이든 살리든 내맘대로”라는 윤주의 선언이나 아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눌러

15)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전후 소설이 깨지기 쉬운 남성 정체성, 전후 젠더 정체성이 항상 개인에게는 어떤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기본 논지에 공감하면 서도 (상대적임을 거듭 부연하고 있지만) 서기원 소설의 남성들이 성찰하는 남성성 그림으로써 성숙한 남성성을 보인다는 노지승(2010)의 평가는 과분하다 할 것이다.

죽었다고 외치는 옥남 어머니는 '이빨 달린 자궁(vagina dentata)'이나 메테이아, 살리고 기르는 것만이 아니라 죽이기도 하는 낯선 여성·모성을 떠올리게 한다. 정상가족을 기대하는 남성 인물들에게 이 이질적이라 섬뜩한 모성은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다. 남성 인물들은 아비 되기를 꿈꾸지만 이 낯선 여자들은 아비 없는 아이를 잉태할 뿐이다. 남성 인물들은 잉태한 아이를 확실히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여성 인물들과는 그 처지가 다르다. 윤주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형남인지 상덕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5년 만에 어렵게 잉태된 승숙의 아이도 과연 도섭의 아이인지 철훈의 아이인지 모호하다.

구두끈을 매고 난 그네는, 앙코오르에 답례하는 바레리아나의 시늉으로 치마를 살짝 들어올리며 머리를 꾸벅하더니 돌아서버리는 것이었다. “아비 없는 엘 어쩔라구 그러지?” 상덕이 이지러진 얼굴로 말했다. “죽이든 살리든 내맘대로 하니까요!” 두어 발짝 거닐다가 돌아서며 윤주는 쏘아붙였다. “미스 최! 이 봐!” 형남이 다급히 말문을 열려는데, “그만두세요 애아버지가 분명했단들 난 하자는 대로 했을지 몰라요... 모르시겠어요? 두 분 다 아버진 아니예요 아시겠어요?... 굿바이! 신사 여러분들이여!” 그러고는 사내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거기까지의 동작이 너무도 멋들어진 호흡이어서 중간에 형남이 가로지를 여유를 주지 않았다. 굿바이! 신사 여러분들이여! 하는 그네의 쾌활한 입술에서 형남은 뜨거운 울음 같은 것이 목청에 치솟았다. 빼이적! 대문을 여닫는 소리가 났다.<sup>16)</sup>

서기원 소설 속 청년들은 기껏 설정된 사랑의 대상에게서 낯선 새로움을 읽어내고 두려워하게 되거나, 거둬 아비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보지만 아비 없는 아이를 마주하게 된다. 이는 오히려 구태의연해 보이는 이들

16) 서기원, 이훈 편, 암사지도, 『서기원 작품집』, 지만지 고전선집, 2010, 55~56쪽.

청년의 욕망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깃들어 있음을 의미한다. 서기원 소설 속 청년들은 아버지를 한결같이 열망하는 듯하지만, 낯선 여자와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정작 이들이 열망하면서 동시에 열망하지 않음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서기원은 ‘생명에의 애착’이라는 의미에서 윤주가 잉태한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통해 희망을 그리려했다고 말한 바 있다.<sup>17)</sup> 그러나 윤주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윤주를 함부로 대하든 상덕과 달리 정작 윤주를 사랑하던 형남은 낙태를 먼저 생각한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상처가 아니었다고 승숙을 비난하지만 도섭은 애초에 승숙과 최중위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으리라는 것을 은연중에 짐작하고 있으며, 아들 준식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온은 바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내가 할 일은 이게 아닌데...”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아이를 낳자마자 눌러 죽인 옥남 어머니에 더해 그 남편 석수는 다음날 마주친 지온을 보고 허죽허죽 웃다 못해 너털웃음을 터트리고, 지온 역시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들인 준식 보다는도 기르는 개인 친구에게 더 마음을 주는 축이다. 지온에게 삶은 비참한 것이다. 그는 어려서 죽은 동생에게도 일찍 죽어 도리어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평범한 가장으로 보이는 지온은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앓고 있는 아들 준식을 보며 살의를 느끼기도 한다. 살해된 아거나 준식에게, 이런 아버지들은 그다지 기뻐만한 보호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아이를 대하는 청년들의 태도와 무관하며,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있다고 하여도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이다. 낯선 여자 그리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버

17) 『한국전후문예작품집』(신구문화사, 1963, 413쪽)에 붙은 작가의 말 암사지도에 관하여, 서기원은 생명의 원시적인 애착과 신앙은 우리들의 고뇌와 과제를 결코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못되나 구원의 가능성과 암시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없는 아이는 남편이고 싶지만 남편이고 싶지 않은, 아버지 되기를 열망하면서 동시에 열망하지 않는 청년들의 욕망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녀를 갖고 싶지만 동시에 온전히 갖고 싶지 않다. 아버지 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원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 없는 아이였듯이 나의 아이도 아버지를 모를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언저리, 아버지의 그림자를 더듬었을 뿐 아버지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모르며 따라서 내가 되고자 하는 아버지가 무엇인지 혹은 정말 아버지가 되고 싶은 것인지조차 나 자신도 알지 못하기에 말이다.

라깡은 프로이트의 '포트 다(fort-da)' 게임을 재해석하며 아이가 던진 실패를 어머니가 아닌 대상 소타자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젝은 이 게임의 근본적 불안은 아이가 대타자의 향락에 사로잡혀있음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지젝은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에게서 어머니 부재의 극복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공간을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노력을 읽는다.<sup>18)</sup> 이처럼 프로이트의 해설을 전도시킨 지젝의 해

18) 프로이트는 18개월 된 자신의 손자가 실패를 던졌다가 다시 끌어당기며 '오'와 '아'를 번갈아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다양한 해석을 시도한 바 있다. '오'와 '아'는 각각 어머니의 부재와 현존을 상징하는 fort와 da를 뜻한다. 이때 포트 다(fort-da) 게임은 어머니를 상실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놀이로 상징화해 반복하며 그 순간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자아의 보호기제가 되는 동시에 스스로 어머니의 현존과 부재를 연출할 수 있다는 통제의 능력을 통한 희열을 주기도 한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포트 다 게임을 본능적 욕구를 포기하고 통제함으로써 아이가 상징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역, 쾌락 원칙을 넘어서,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03 참고.) 이에 비해 라깡은 이러한 상징화의 효과를 부차적인 것으로 놓고 상징계와 실재(real)의 관계 속에서 포트 다 게임에 함축된 반복을 조명한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부재는 자신의 일부를 상실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실패는 어머니가 아니라 주체로부터 떨어져 나왔지만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는 주체의 일부분이다. 즉 라깡에게서 실패는 어머니의 상징이 아니라 주체에게서 떨어져나간 주체의 일부 즉 대상 소타자이며 포트 다 게임은 이 대상 소타자를 회복하려는 관계를 재현하는 것이다. 대상 소타자는 주체가 대타자의 결여 즉 실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 공백을 메우는 역할도 한다. 물론 이 공백이 완벽히 메워질 수는 없으며 결국 대상 소타자는 대타자의 결여를 은폐하고 있는

설을 따르자면, 서기원 소설 속 청년들의 아버 되기 열망은 일종의 ‘포트 다(fort-da)’ 게임이다. 이들 청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고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청년들은 ‘포트 다’ 양극 사이를 불안정하게 진동한다. 어떤 확고한 아버지도 찾지 못하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떠날 수도 또 함께 할 수도 없는 딜레마를 반복하는 것이다. 서기원 소설 속 청년들의 이 아버 되기의 불안정한 욕망은 압도적인 아버지의 현존에 대한 불안 곧 아버지를 부정하는 행위이든 긍정하는 행위이든 그것으로부터 놓여날 수 없음을, 그리고 결국 그렇게 나를 붙드는 아버지는 나를 무한히 불편하게 하는 불안임을 적실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남은 남성 청년들과는 달리 대문을 나서는 윤주의 발걸음은 작위적일 정도로 경쾌하다. 자살을 기도하던 승숙은 아기의 태동을 느끼고, 윤주는 아버 없는 아이와 더불어 짐짓 경쾌하게 대문을 나선다. 이들이 분명 위태로운데도 경쾌한 것은, 암울하면서도 희망적인 것은 바로 아버 없는 아이의, 아버 없음의 미래가 적어도 양극 사이의 진동을 비껴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낯선 여자들과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혹

---

것이다.(자크 라캉, 맹정현·이수련 역, 『자크 라캉 세미나 11-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새물결, 2008 참조.) 라캉의 논의를 재해석하는 지적에 따르면 포트 다 게임의 진정한 문제는 이러한 폐쇄로부터 탈출하는 것에 있다. 근본적 불안은 아이가 대타자의 향락에 사로잡혀있다는 것에서 발생하며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거리를 확보하여 자신의 욕망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공간을 필사적으로 갈망한다. 지적은 주체가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것은 환상 가로지르기를 통한 주체의 결핍을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상징적 정체성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야말로 상징 질서를 전복하는 급진적이고 진정한 행위라는 것이다. 즉 지적의 논의에 따르면 포트 다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프로이트가 말한 바 곧 어머니의 부재를 극복한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열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아이인 셈이다.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슬라보예 지젝, 이성민 역,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비, 2005 참조.)

은 버려진 청년들은 과연 아버지의 폐쇄 회로를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어떤 열린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사실 초기 소설을 통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기원 초기 소설의 윤리가 여자를 책임진다거나 아비 되기를 꿈꾼다는 점, 그래서 이들이 '건강한' 남성 정체성을 회복하거나 그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해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여자들의 새로운 낯선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 선뜻 어떤 남편이나 어떤 아비 되기를 저어하고 망설이는 것과 관련된다. 아비 되기의 열망과 열망하지 않음 사이에 갇힌 그 욕망 회로의 불안정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 대타자의 향락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공간을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것 말이다. 그것의 성패를 떠나서 아비 없는 아이로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암울하기도 한 이 전망이야말로 서기원 초기 소설이 보여주는 한계이자 동시에 윤리라고 할 것이다.

## 5. 결론

전쟁은 현실의 물리적 공간을 그리고 그에 더해 법, 윤리, 이데올로기 등 역시 폐허로 만들어 버린다. 서기원 소설 속 청년들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전쟁을 맞닥뜨렸고 그리고 우연히 살아남았다. 본고는 서기원 초기 소설을 통해 이러한 청년들이 폐허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으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아버지 표상은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아버지는 제도의 수호자이자 견고한 제도의 상징이기도 한 때문이다.

우리 근현대 문학에서 '아버지 부재'와 그에 대응하는 청년들의 연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크게 보아 서기원 소설 역시 이러한 맥락에 자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서기원 초기 소설 속 청년과 그들이 이룬 공동체는 그간의 청년 및 그들이 이룬 연대와는 다소간 다른 면모를 보인다. 아버지의 법을 수용하거나 저항해 온 ‘모험적인 청년’들이 아버지에게 대응해 동세대와 적극적인 연대의식을 갖으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는 달리, 서기원 소설 속 청년들은 유기(遺棄)된 존재이며 이들을 묶어주는 것은 어떤 신념이나 젠더 등이 아니라 버려졌다는 감각적 공통성이다. 이 속에서 이들은 이성과의 사랑이나 정상가족을 꿈꾼다. 즉 버려진 남성 청년들은 공히 아비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아비 되기를 희망하면서도 아비가 어떤 존재인지 혹은 무엇인지를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모험적인 청년들은 아버지의 법과 타협하거나 아버지를 강하게 부인하거나 혹은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아버지를 찾아내곤 한다. 그러나 서기원 소설 속 청년들은 아버지의 자리를 맴돌면서도 이에 대해 치열하게 탐색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그저 아버지란 나와 닮은 존재인 것으로 정리하고 부자간의 관계를 매듭짓는다. 죄를 지었거나 모자란 자신의 모습 위에 아버지를 겹쳐놓음으로써 아버지 역시 손쉽게 승인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해버린 아버지가 아버지의 진실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청년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며, 따라서 아비 되기를 꿈꾸지만 정작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되고자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성과의 사랑을 꿈꾸지만 이때의 사랑은 타자성에 대한 긍정이자 수용과는 거리가 먼 시늉일 뿐이고 아비 되기를 꿈꾼다고 말하지만 무엇이 되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청년들. 그래서 이들은 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여자와 아비 모를 혹은 아비 없는 아이를 만나게 될 뿐이다. 이처럼 양면적인 서기원 소설 속 청년들의 아비 되기 욕망은 압도적인 아버지

의 현존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 보이는 일종의 '포트 다(fort-da)' 게임이다. 이들의 욕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부정하는 행위이든 긍정하는 행위이든 그것으로부터 놓여날 수 없다는 것, 아버지는 나를 무한히 불편하게 하는 불안이라는 것이다. 서기원 초기 소설 속 청년들의 삶의 양상, 분투는 아버지 되기의 열망과 열망하지 않음 사이에 갇힌, 그 욕망 회로의 불안정함을 적실하게 드러내 보인다.

실상 서기원 소설로 한정지어 보자면, 아버지 없는 아이의 미래도 또 이들 청년들의 미래도 마냥 밝지는 않다. 그러나 질문은 던져졌으며, 이 질문은 비단 특정 작가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아버지 되기 욕망의 폐쇄 회로를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어떤 열린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남은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1~448쪽.
-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9, 1~487쪽.
- 김은정, 「전후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 몸 공유' 모티프의 의미 연구」, 『국제어문』 제 61집, 국제어문학회, 2014, 157~181쪽.
- 김택호, 「낭만적 희망의 발견과 공동사회로의 복귀의지」, 『한국문예비평연구』 16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5, 101~122쪽.
- 노지승, 「전후 소설에 나타난 남성 정체 의 문제와 문학교육적 함의」, 『문학교육학』 제33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0, 41~68쪽.
- 나병철, 「전쟁체험과 성장소설」, 『청람어문교육』 33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6. 6, 165~199쪽.
- 맹정현, 『리비들로지』, 문학과지성사, 2009.
- 배경열, 「서기원 초기 소설의 특질」, 『배달말』 29집, 배달말학회, 2001, 107~134쪽.
-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1~343쪽.
- 손종업, 「서기원 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재현 양상」, 『어문연구』 제31권 제3호, 어문연구학회, 2003년 가을.
- 신중곤, 「1950년대 전후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의 굴절 양상」, 『현대소설연구』 16,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327~347쪽.
- 이호규, 「서기원 1950-60년대 초기 소설 연구」, 『새얼 어문논집』 18집, 새얼어문학회, 2006. 2, 29~44쪽.
- 조남현, 「다양한 소재에서 정직한 인식으로」, 서기원, 『암사지도(오늘의 작가총서)』, 민음사, 1996, 358~359쪽.
- 정연희, 「전후 소설에서 '부재하는 아버지'와 '변형된 아버지'의 양상 연구」, 『인문 언어』 12-1, 국제언어인문학회, 2010, 63~84쪽.
- 차혜영, 「서기원의 1950년대 소설」, 『한국언어문화』 13권, 한국언어문화학회, 1995, 273~288쪽.
-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역, 『이테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1~392쪽.
- \_\_\_\_\_, 이성민 역,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비, 2005, 1~654쪽.
- 자크 라캉, 맹정현, 이수련 역, 『자크 라캉 세미나 11-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새물결, 2008, 1~448쪽.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03,  
1~545쪽.

와카쿠와 미도리, 김원석역, 『사람은 왜 전쟁을 하는가: 전쟁과 젠더』, 알마, 2007,  
1~291쪽.

## ABSTRACT

The Youth-without-a-father's Becoming a Father, Morals of 'Fort-da'  
 —The Youth Solidarity and Unstable Desire in the Seo Gi-won's Early Novels—

Park, Pil-hyeon

Seo Gi-won, who made his debut as a writer in 1956, is categorized as a post-war new-generation novelist. Yet, different from his contemporary post-war authors, he has been assessed that he intended to observe and recognize space and Sachlichkeit(即物) sincerely. When one sincerely observes real space and Sachlichkeit in the overwhelming ruins of the war, where it will lead one to? This paper aims at finding an answer of this question through the specific aspects of the life of the young people in Seo Gi-won's early novels, that is, the youth's solidarity, relationship with fathers and the main young characters' desire 'to become fathers'.

'The absence of a father' and solidarity among the young are often found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literature. However, the community formed by the young men in Seo Gi-won's novel is unique in that it is based on passive commonness rather than on an active sense of solidarity. This community is grounded on the commonness as abandoned beings prior to any beliefs or genders. The male youth as deserted beings dream about love with females and 'a normal family'. However, to them, love is not the discovery and acceptance of otherness, but a normative behavior to generate social relationships they have not had. Therefore, the community they have formed also collapses easily. The community of the youth in Seo Gi-won's novel depicts no friendship or love, but rather the empty reality where all of them are absent.

All the young people in the novel dreaming of love with females and a normal family hope to become fathers. Yet, in the work, it is difficult to find their fathers. Specific aspects of their fathers are not highlighted, and they are not strongly denied or affirmed. Instead of investigating into

their absent fathers, the young men overlap themselves and their fathers' symbols. They easily approve their fathers just because they resemble them, and settle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fathers. The problem is that the fact that their fathers are someone who look like them does not guarantee to reveal their truth. They conclude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fathers without working hard, such as rationalization of intense denial or affirmation, but as a result, their fathers still remain incomprehensible.

At a glance, these young men seem to be able to achieve an ordinary life without difficulties. However, they can never obtain what they want easily. Even though they force themselves to restore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fathers, they do not know what their fathers were like. Although they expect love with women and their own babies, they only come to face unfamiliar women and children without or not knowing their fathers, which they cannot understand with their gender sensitivity. The desire of the young men in Seo Gi-won's novel to become a father is a kind of 'fort-da' game. According to Žižek's interpretation, these young men's desire is the overwhelming anxiety about the existence of fathers. They repeat the dilemma of failing to find a fixed father, but being unable to leave nor being with a father. They long to become a father, yet, at the same time, do not want to be a father. This paradoxical desire shows that a father is anxiety making one uncomfortable limitlessly, and that one cannot break free from it whether through a behavior to deny it or affirm it. That is, the morals of Seo Gi-won's early novels do not lie in their hope to take responsibility for women or become a father, and therefore, to recover so-called healthy identity as men. The exposure of the instability in the desire circuit stuck between the desire to become a father and that not to become one, this outlook that seems somewhat gloomy, is the very limit and simultaneously ethics of Seo Gi-won's early novels.

**Key Words** post-war novel, post-war new generation, Seo Gi-won, youth community, symbol of a father, to become a father, 'fort-da' game, A Blank Map(暗射地圖), This Mature Night's Embrace, Record of Pregnancy, Moonlight and Famine,

『Night Flower(夜花)』, 『Inheritor』, 『Record of Twilight(薄明記)』

논문투고일	: 2019.04.22
심사완료일	: 2019.05.13
게재확정일	: 2019.05.20